

“박세리 보며 키운 메이저 꿈, 22년이나 걸렸네요”

김세영, 생애 첫 메이저 우승

LPGA KPMG 챔피언십

14언더파 266타... 통산 11승

“압박감 심했지만 최선 다해 집중
한국 돌아가 가족 안아주고 싶어”

“오래 메이저 우승이 없었는데, 이렇게 하게 돼 너무 기쁘다. 눈물을 참고 싶는데 언제 터질지 모르겠다.”

12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뉴타운 스퀘어의 애러니밍크골프클럽에서 막을 내린 KPMG 여자 LPGA 챔피언십(총상금 430만달러)에서 우승을 차지한 김세영(27)은 경기 끝난 뒤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김세영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통산 11번째 우승을 첫 메이저 트로피로 장식하며 20년 넘게 품어온 ‘메이저 우승’이라는 꿈을 이뤘다.

4라운드를 단독 선두로 시작한 김세영은 버디만 7개를 잡아내며 최종 합계 14언더파 266타를 기록, 박인비(32)를 5타 차로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2015년부터 LPGA 투어에서 뛰며 매년 승수를 쌓았지만 유독 메이저대회에서만은 우승과 인연이 없던 그는 마침내 ‘메이저 무관(無冠)’의 아쉬움을 날렸다.

“1998년 박세리 프로님이 US여자오픈에서 우승하는 것을 보고 나도 메이저에서 우승하고 싶다고 생각했다”는 김세영은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다. 지난해 최종전인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에서 우승했을 때도 큰 대회라 기뻐했는데, 이번에는 그때와 또 다른 감정이다. 뭔가 감동적이다”라고 말했다.

‘역전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강한 승부사 기질을 자랑하지만, 김세영은 첫 메이저대회 우승이 눈앞에 다가온 이날 유독 압박감이 컸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어제 잘 때부터 압박감을 느꼈다. 여기 예상 도착 시각보다 30분 정도 늦었다. 시간을 놓칠 정도로 당황했다. 메이저대회 우승을 원한 만큼 압박감이 왔던 것 같다”고 돌아본 뒤 “전에는 정말 우승하고 싶어서 답답하던, 이번 주는 냉정하고 집착하게 집중을 잘했다. 외부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았던 게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자평했다.

이날 김세영은 앞 조에서 경기한 박인비의 추격을 받았다. 박인비가 버디로 쫓아갈 때마다 김세영이 버디로 뿌리쳤다. 2015년 이 대회 우승을 다뤘을 때 ‘역전의 여왕’을 넘지 못했던 김세영이 이번에는



이 기쁨 오래오래~ 김세영이 12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뉴타운 스퀘어의 애러니밍크골프클럽에서 LPGA투어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우승 트로피를 끌어안은 채 미소를 짓고 있다.

/연합뉴스

완벽한 경기로 선의의 경쟁을 이겨냈다.

김세영은 “인비 언니가 당연히 잘 칠 거라고 예상했기에 그걸 뛰어넘을 필요가 없었다. ‘대결한다’고 생각하면 질 것 같아서 더 잘 치려고 노력했다”면서 “나 자신에게 집중한 게 좋았다”고 우승 요인을

꼽았다.

박인비는 “김세영이 넘볼 수 없을 정도로 잘 쳤다. 메이저 우승자다운 플레이였다”고 축하와 격려를 보냈다.

김세영은 “좋아하는 선수이자 언니와 대결 구도

를 가졌다는 게 영광스럽다”면서 “앞으로 이런 기회가 더 많아서 서로 멋진 플레이를 하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가족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았다.

“한국에 돌아가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질문에 “가족들을 만나 안아주고 싶다”고 답한 김세영은 “매일 통화하며 가족들이 밥 먹는 것, 운전하는 것 걱정하신다. 이번에 처음 혼자 투어를 하게 됐는데, 걱정하신 것보다 잘해서 이제 걱정을 덜지 않을 것 같다”며 애정을 표현했다.

/연합뉴스

흠신, 황제와 어깨 나란히

나달, 프랑스 오픈 테니스 우승... 메이저 20승 페더러와 최다 우승 타이

라파엘 나달(2위·스페인)이 메이저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 최다 우승 타이 기록을 세웠다.

나달은 1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스타드 롤랑가로스에서 열린 프랑스오픈 테니스대회(총상금 3800만유로) 마지막 날 남자 단식 결승전에서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를 3-0(6-0 6-2 7-5)으로 물리쳤다.

이로써 나달은 프랑스오픈 4연패를 달성하며 이 대회에서만 통산 13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 상금은 160만 유로(약 21억 7000만원)다.

또 메이저 대회를 통틀어서는 단식에서 20차례

정상에 올라 로저 페더러(4위·스위스)가 보유한 이 부문 최다 기록과 동률을 이뤘다.

이날 승리로 프랑스오픈에서 통산 100승(2패)을 채운 나달은 프랑스오픈 외에 US오픈에서 4번 우승했고 윌버던은 두 번, 호주오픈에서는 한 차례씩 왕좌에 등극했다.

나달은 조코비치와 상대 전적을 27승 29패로 만회했고, 메이저 대회 결승 맞대결에서는 5승 4패로 우위를 점했다. 또 지난해 1월 호주오픈 결승에서 0-3(3-6 2-6 3-6)으로 당한 패배를 설욕했다.

/연합뉴스

전남, 다시 불 지피는 PO 희망

‘K리그2’ 충남아산에 1-0 승... 4위 경남·5위 대전과 승점 동률

전남 드래곤즈가 3경기 만에 승리를 기록하면서 4강 싸움을 이어갔다.

전남은 지난 11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2020 K리그2 23라운드 충남아산FC와의 홈 경기에서 1-0 승리를 거뒀다.

4강 도전을 위해 승리가 간절했던 전남에서 하승운이 주인공이 됐다.

전반 6분 만에 전남의 골이 터졌다.

왼쪽 측면에서 페널티박스에 진입한 에르난데스가 중앙에서 쇄도하던 하승운을 향해 공을 띄웠다.

높게 뛰어오른 하승운이 헤더로 골대를 가르면서 선제골 주인공이 됐다.

이후 올 시즌 최소실점(19실점) 타이틀을 보유한 전남의 ‘짚물 수비’가 가동됐다.

후반 막판 몇 차례 위급 장면을 연출하기는 했지만, 전남이 충남아산의 공세를 봉쇄하면서 경기를 그대로 1-0으로 마무리했다.

3경기 만에 승리를 거둔 전남은 7승 12무 4패로 승점 33점을 기록하게 됐다.

4위 경남FC와 5위 대전하나시티즌과 같은 승점이다. 전남은 4-5위를 압박하면서 플레이오프 진출 희망을 이어갔다.

한편 승리로 분위기 반전을 이룬 전남은 오는 18일 선두 탈환에 성공한 수원FC를 상대로 연승에 도전한다. 수원FC는 앞선 대전과의 원정경기에서 1-0 승리를 거두는 등 5연승을 거둬으로써 제주유나이티드(승점 48)를 득점에서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가을야구는 둘째 ... 무너진 수비 재건부터

T 타이거즈 전망대

지난주 2승 그쳐 순위싸움 치명상

선발진 부진에 불펜 과부하

최형우에 의존도 큰 타선도 고민

이번주 NC·LG와 6연전

관중석 개방 팬들 앞 자존심 지켜야

승리보다 기본이 먼저다.

KIA 타이거즈는 ‘가을 잔치’의 분수령이었던 한화-SK와의 7연전에서 2승 5패에 그치면서 5강 싸움의 관망자 입장이 됐다.

시즌 최종전까지 16경기를 남겨두고 있는 만큼 KIA의 5강 경주의 수는 존재하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 새로운 한주 1위 NC와 6연승 중인 가장 뜨거운 팀 LG를 만나야 한다.

쉽지 않은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앞선 7연전의 패인을 돌아보고, 기본에 충실하면서 순리대로 한 경기 한 경기를 풀어야 한다.

지난주 임기영과 김기훈이 기대 이상의 역할을 해주면서 선발진에 힘을 보태줬지만, 여전히 선발진의 이닝은 고민으로 남았다. 여기에 7연전 일정을 소화하면서 불펜의 과부하도 심했다.

운도차가 큰 불펜 상황 탓에 필승조의 부담이 컸다.

박준표, 이준영, 그리고 고졸 투수 정해영이 지난주 5경기를 소화했다. 부상에서 돌아온 마무리 전상현은 전남 연장 12회까지 가는 긴박한 상황에서



윌리엄스 감독

도 마운드에 오르지 못했다. 그리고 어깨 염증 재발로 19일 다시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브룩스와 이민우의 빈 자리에서 영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김기훈, 김현수, 남재현 등이 패기 넘치는 빠른 승부로 기싸움에 역할을 해줘야 한다.

최형우 의존도가 큰 타선의 폭발력도 고민이다. 지난주 윌리엄스 감독은 김선빈을 6번에 이어 4번에 배치하는 파격적인 라인업으로 침체된 타선을 살리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전반적인 타격감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타자들의 성급한 승부는 이어졌다.

특히 ‘29홈런’에서 막힌 터커의 부진도 아쉽다. 9월 20일 이후 아홉수를 넘지 못하고 있는 터커는 안타 생산력도 뚝 떨어졌다. 최근 10경기에서 38타수 7안타에 그치면서 0.184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다.

타선에서는 차분하게 ‘눈아구’를 하면서 상대의 빈틈을 파고드는 전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기본’에 충실한 수비가 우선이다. SK와의 홈경기가 열린 11일, KIA는 8회 나온 나지완의 역전 투런에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연장 12회까지 가는 승부는 수비 싸움에서 갈렸다.

중요한 순간 있던 수비 실수에 자멸하면서 5위 두산과 4.5경기 차로 멀어졌다.

올 시즌에도 KIA는 런다운 상황에서 아쉬운 수비 장면들을 연출하며, 아웃카운트를 쌓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볼플레이에서도 실수가 이어지면서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이다.

지난주에도 KIA는 런다운, 볼플레이라는 ‘기본’부터 다지며 수비 안정화를 꾀해야 한다.

5강 꿈은 멀어졌지만, 아직 시즌은 끝나지 않았다. 13일부터 관중석도 재개방된다. 팬들 앞에서 KIA가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KBO 중간순위 (12일 현재)

순위	팀명	경기	승	무	패	게임차
1	NC	130	77	4	49	0.0
2	LG	133	74	3	56	5
3	KT	130	73	1	56	5.5
4	키움	136	75	1	60	6.5
5	두산	131	70	4	57	7.5
6	KIA	128	66	0	62	12
7	롯데	128	65	1	62	12.5
8	삼성	131	57	3	71	21
9	SK	132	45	1	86	34.5
10	한화	131	43	2	86	35.5